

'24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10	10.16	회의실	10/12	4	1	15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김안나·박양우·박종수·유한별·이경주·이숙희·장은백·정인영·정희(10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김주호(경영본부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7	5	0	3	15	0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4	1	0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뉴스 <재생에너지 규제하는 ‘계통 포화 해소 대책’ 그게 뭔데?>, 영상이 아닌 글로만 전달 부분 아쉬움	<뉴스투데이>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10.17) 등 방송 조치	'24.10.
"	탄소중립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바람	<뉴스데스크> 신안군, 세계가 주목한 지속 가능한 도시(11.9), <뉴스투데이> 수상 태양광 남은 과제는(10.28), 한전, 빅스포 2024 개최(11.7) 등 방송 조치	"
"	토론 프로그램 시 녹화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제작하면 패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더 압축적으로 담고, 녹화 자체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진행할 것임	보도 책임자와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공항통합 이전 관련 내용 주기적인 보도 필요	<뉴스투데이> 부산 대구와 무안공항 활성화 협업(10.28), 사과가 문제 아냐..입장 차 여전(10.23), <뉴스데스크> 공사연장에 셈법 복잡(10.23), <5시 뉴스> 군 공항 이전, 국회 등에서 나서달라(10.22) 등 방송 조치	"
"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우리 지역에 내려올 수 있도록 관심 필요	<뉴스투데이> 공정률 80% 전남 해상 풍력 건설 순조(10.27), 여수 묘도에 ‘에코 에너지 허브’ 주목(10.22) 등 방송 조치	"
"	<시사 용광로> 영광 한빛원전의 연장과 관련한 정부의 의도 등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은 점, 시간 부족으로 대책 논의 부족 등 아쉬움	<뉴스데스크>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쟁점은?(11.7) <시사 용광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적절한가?(11.7) 등 방송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정책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뉴스데스크> 시골로, 시골로 새로운 섬의 미학 촌캉스(10.23), 1회용품 없는 광양 축제 ‘주목’(10.18), <시사톡 라이브> 고교무상교육 올해 말 종료 예정, 어떻게 해야 하나?(10.29), <뉴스데스크> 하루 더 머무는 관광(10.17) 등 방송 조치	"
교양	<남도탐구생활> 야구동아리 블랙베어스 소개 시 생방송 출연 긴장감에 다소 딱딱했고, 관련 영상 추가 삽입 등 보완 필요해 보였음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시청자에게 생활체육 종목 소개해줘서 다양한 운동 흥미롭게 접할 기회를 주기 바람	<뉴스투데이> 집중력과 열정으로 승부..흥덕고 이종혁(10.21), <뉴스데스크> 바쁜 일상 속 건강 챙기기..‘러닝크	"

		루' 인기(11.9) 등 방송 조치	
"	광주를 빛내주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 소개와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아 주길 바람	<남도탐구생활> 한강의 기적! 김길자 고 문재학 열사 어머니(10.23), 흑백? NO! 다채로운 요리사 안유성 명장(10.31) 등 방송 조치	"
"	<남도탐구생활>에서도 지속적인 농업농촌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폐업한 시골 의원..주민 손으로 다시 열어(10.21), 한강과 광주 비엔날레(10.24),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10.28, 10.21) 등 방송 조치	"
"	<시청자가 만드는 TV> 시청자 제출 콘텐츠 중에서 우수 작품 시상 필요	보도 책임자와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기타	<대한민국 김치대전> 적극 홍보 고민 바람	<뉴스투데이> 스포츠 제작 방송, <남도탐구생활> 전남 기치 맛의 비밀(10.24), 홈페이지 메인 배너 홍보 등 시행 조치	"
"	홈페이지 뉴스 섹션에서 당일 보도의 썸네일 이미지 MBC 로고로만 돼 있어 단조로움(이경주)	보도 책임자와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시청자의견)	화면 상단 '광주문화방송' 한글 표기 대신 광주MBC 로고 사용 바람	프로그램별 선별적 표기 조치	"
합계		15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뉴스 <재생에너지 규제하는 ‘계통 포화 해소 대책’ 그게 뭔데?>, 영상이 아닌 글로만 전달 부분 아쉬움. 음성으로 기사 서비스 시 시청 편리할 것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임	○		
"	탄소중립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바람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음	○		
"	토론 프로그램 시 녹화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제작하면 패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더 압축적으로 담고, 녹화 자체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진행할 것임	녹화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진행자와 패널의 이해를 넓히고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공항통합 이전 관련 내용 주기적인 보도 필요	중요한 지역 현안인 만큼 적극 보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음	○		
"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우리 지역에 내려올 수 있도록 관심 필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음	○		
"	<시사 용광로> 영광 한빛원전의 연장과 관련한 정부의 의도 등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은 점, 시간 부족으로 대책 논의 부족 등 아쉬움	토론 프로그램이나 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을 더욱 다각도로 다루도록 하겠음	○		
"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정책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 지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음	○		
교양	<남도탐구생활> 야구동아리 블랙베어스 소개 시 생방송 출연 긴장감에 다소 딱딱했고, 관련 영상 추	주제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가 삽입 등 보완 필요해 보였음				
"	시청자에게 생활체육 종목 소개해 줘서 다양한 운동 흥미롭게 접할 기회를 주기 바람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종목을 소개하겠음	○		
"	광주를 빛내주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 소개와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아 주길 바람	지역 인물을 발굴하고 지역민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남도탐구생활>에서도 지속적인 농업농촌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람	농업의 발전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계속하겠음	○		
"	<시청자가 만드는 TV> 시청자 제출 콘텐츠 중에서 우수 작품 시상 필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행이 어려움이 있으나 시청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음		○	
"	<대한민국 김치대전> 적극 홍보 고민 바람	방송과 대외 언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기타(시청자의 견)	홈페이지 뉴스 섹션에서 당일 보도의 썸네일 이미지 MBC 로고로만 돼 있어 단조로움	썸네일 이미지 제작을 확대하고 뉴스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음	○		
"	화면 상단 '광주문화방송' 한글 표기 대신 광주MBC 로고 사용 바람	한글 사용의 의미를 확대하면서도 채널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10월)

일시	2024. 10. 16.(수)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 김안나 · 박양우 · 박종수 · 유한별 · 이경주 · 이숙희 · 장은백 · 정인영 · 정희 위원 (10명)	
	회사	김낙곤 사장, 김주호 경영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디자인비엔날레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다시 맡게 돼 새로 선임된 예술감독과 자리를 함께하고 왔다. 디자인비엔날레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2024년 10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사장님 말씀 먼저 듣겠다.
- 김낙곤 사장 : -지난달 광주비엔날레에서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했다.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지난주 창사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오전에는 사내 행사로서 포상자를 시상하고 자축했다. 오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을 하고자 했으며, 회사 앞마당에서 열렸다. 고 한창기 선생, 노성대 전 사장, 라디오 <푸른 신호등> 교통 통신원, 무등산사랑환경대학 등 개인과 단체에 공로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창사 60주년을 축하해주시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박양우 위원장 : -먼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길 바란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9월 28일 창사 60주년 특집 <놀라운 세시> 공개방송을 했다. 창사 60주년 특집으로 <더 프레지던트>, <타이거즈 왕조>,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방송 편성을 했으며, 10월 8일 오후 다섯 시부터 두 시간 동안 <민음의 60년 여러분의 광주문화방송입니다> 생방송을 했다. RAPA 공동제작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텔레비전 송출 작업, 10월 13일 무등산권지오마라톤 중계 등을 했다. 주요 계획으로 <정오의 희망곡> 공개방송이 18일에, 창사 60주년 특집 <시사톡 라이브>가 21일에 예정돼 있다. <시사톡 라이브> 토크콘서트는 10월 29일 조선대학교에서 할 예정이다. <놀라운 세시> 공개방송이 11월 1일 영광에서 열리고, <더 프레지던트> 촬영이 11월 첫 주에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있다. 창사특집으로 <타이거즈 왕조> 방송 준비를 하고 있으며, 11월 22일 <대한민국 김치대전> 제작, 편성 준비를 하고 있다. AI 관련 특집 다큐는 제작을 계속하고 있는데 11월 말 편성 예정이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창사 60주년 특집 <뉴스데스크>로 되돌아본 광주MBC 60년, 지역민과 함께 할 1백 년 등을 진행했다. 5.18 보도 44년 만의 사과는 5.18 진상조사위 결과를 토대로 광주MBC가 44년 만에 대시민 공식 사과를 한 것이다. 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공식화했다. 창사 60주년 특집 대토론 2부작 <항쟁과 헌법>은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주제로 토론 2부작을 제작했다. 부산MBC에도 10월 16일 2부작 방송했다. 재생에너지 규제 논란 연속보도를 했는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제한을 9월에 시작했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우리 지역 영향을 집중취재했다. 상대사에서 보도 이후 주제 토론을 열 정도로 관심이 있다. 취재 후기 등을 통해 의제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창사 60주년 특집 지역사랑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지역민과 함께한 60년, 앞으로 함께 할 1백 년을 주제로 한다. <시사용광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광주·전남 타격과 대책은?', 창사 60년 특집토론 <항쟁과 헌법> 1, 2부, '멀기만 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을 주제로 했다. 주요 계획으로 창사 60주년 특집 연속 기획보도 '광주MBC와 나'에서는 광주MBC를 통해 인생이 바뀐, 인생을 바꾼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연말까지 격주로 방송할 예정이다. 1편에서는 소리꾼 김소진의 광주MBC, 2편 국립공원 승격 이끈 무등산 지킴이들, 3편 교통문화 바꾼 <푸른 신호등>의 교통 통신원들, 4편 폭도라 부를 수 없다 해직된 노성대 전 MBC 기자 등을 방송한다. 10월 중 광주시의회와 국회의 시정질문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지상파 중계방송과 유튜브 중계방송 예정이다. 질문에서 나오는 각종 개선사항을 심층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다.
- 박양우 위원장 : -다양한 내용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보도를 하는 것 같다. 그럼,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다.

○ 강필오 위원 : -9월 19일 <남도탐구생활> ‘첫 출전에 우승까지?! 전남대학교 야구동아리 블랙베어스’ 편에서는 선수 출신 학생 없이 대학교 동아리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남대학교 야구동아리 ‘블랙베어스’ 회장과 주장을 스튜디오에 불러 팀의 어려운 점, 향후 목표를 들려줬다. 회장과 주장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우승 소감과 시작하게 된 계기 등을 알려줬고, 생생한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은 좋았다. 하지만, 생방송 출연의 긴장감에 다소 딱딱했고, 관련 영상을 추가로 삽입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9월 24일에는 조선대와 독일 함부르크 청년들이 만나게 된 특별한 이유부터 독일인 학생의 유쾌한 광주 방문기를 소개했다. 2022년 9월부터 시작된 독일 함부르크 슈타일스후프의 청소년 집 출신 청년 17명이 광주를 방문해 조선대 학생들과 교류했다고 한다. 2023년 8월에는 조선대 16명의 학생도 독일을 방문하였고, 올해는 독일에서 광주를 방문하여 10일 동안 광주에서 지낸 이야기를 들려줬다. 특히, 독일인 학생인 키엘 라이머스가 함께 생방송에 참여해 광주 방문 소감을 나눠줘 더욱 풍성하고 생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10월 2일 2024 빛고을캠퍼스 e스포츠 대회를 방송했다. 지난 9월 25일 빛고을캠퍼스 e스포츠 대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전남 대학생들이 5대5 캐릭터 기반의 전술 슈팅 종목인 발로란트 종목에서 총상금 1천만 원을 놓고 경쟁을 펼쳤고, 조선대 ‘CSU’ 팀의 우승을 함께 축하했다. 광주에서 다양한 종목의 대회가 계절별로 펼쳐지고 있으니, 시청자에게 생활체육 종목을 소개해줘서 다양한 운동을 흥미롭게 접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

-<테이스티 남도>에서는 대한민국 조리 명장, 안유성이 호남 최초의 조리 명장이 되기까지 과정을 보여줬다. 제698호 대한민국 조리 명장이자 호남 최초의 조리 명장이 된 ‘안유성’이 초밥을 시작해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남도초밥’을 만들었던 사연과 제1회 미스터 초밥왕 대회를 광주에서 치르고 10년 이상 이어온 기부와 시식 행사,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노하우 전수 목표까지 방송해줬다. 광주를 빛내주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 소개와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안나 위원 : -광주MBC 창사 60주년 기념식에서 광주MBC 사장님의 특별한 사과, 5.18 왜곡 보도와 관련한 44년 만의 공식 사과를 듣고 존경과 감사의 맘이 들었다. 고맙다. 뜻깊은 공로상 수상자들 선정도 훌륭했다. 5.18 당시 광주시민을 폭도라 불러서는 안 된다며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해직됐던 노성대 전 광주MBC 사장, 광주MBC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푸른 신호등> 교통 통신원들에게 시상했다. 10월 11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은 최고로 기분 좋은 뉴스를 떠나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소식이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는 MBC였으면 좋겠다. 10월 8일 <뉴스투데이>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해 다뤘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도로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문제점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남구 정책을 취재 보도해줌으로써 다른 자치구들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 점 좋은 보도였다.

○ 박종수 위원 : -<남도탐구생활> 10월 7일에는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의 도가 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해 배달비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하여 광주 공공 배달앱을 소개했다. 기존 배달앱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임을 소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북돋웠다. 하지만 아직도 점유율 부분에서는 17% 정도여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0월 8일에는 광주MBC 창사 60주년 기념으로 1부와 2부로 편성이 되어 방송되었다. 1부에서는 5.18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등산 등을 잘 그려주었고, 2부에서는 추억의 방송을 소환하여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였다. 특히 <남도 보부상>은 광주·전남지역에 농부 어부 등과 함께 어우러져 지역에 특산물과 먹거리 놀거리 등을 주민 정서에 맞게 잘 풀어놓은 것이 좋았던 기억이 있다. <남도탐구생활>에서도 지속적인 농업농촌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10월 10일 ‘청춘-호남을 탐하라’ 편에서는 광주권 대학생들이 영산강변을 따라 나주, 무안, 목포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고 소개하며 자신만의 솜품을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영산강을 따라 좋은 명소를 많이 소개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하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거 같다.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면 9일~13일까지 진행하였던 영산강정원축제도 소개하였다면 더 알차고 좋은 여행 코스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 유한별 위원 : -광주MBC 창사 60주년 기념식에서 오월 영령, 광주시민,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식적 사과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광주시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큰 용기를 칭찬하며 진정성 있는 바른 언론 광주MBC의 앞날을 응원한다.

-<시사 용광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광주·전남 타격과 대책은?' 편 의견이다. 우선 계통관리변전 소라는 생소한 개념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다만 주제 자체의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설명에 할애했다. 그러다 보니 신규 발전 허가가 나지 않으면 광주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사실상 물 건너갈 예정과 같은 광주·전남 지역의 타격에 대한 선명한 설명이 부족했다. 영광 한빛 원전의 연장과 관련한 정부의 의도 등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은 점 및 시간 부족으로 인해 대책에 대한 논의 또한 짧게 다루어진 점이 아쉬웠다.

- 이경주 위원 : -뉴스 '한 걸음 더 취재 후기' 재생에너지 규제하는 '계통 포화 해소 대책' 그게 뭔데? 의견이다. 3편으로 구성된 이 보도는 재생에너지 규제에 대한 취재 후기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영상이 아니라 글로만 전달되는 부분이 아쉬웠다. 만약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시청 환경이 더 편리해질 것 같고 이동 중이나 다른 작업을 할 때도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10월 8일 <뉴스데스크> '창사 60주년 기념, 광주MBC 5.18 보도 44년 만에 공식 사과' 의견이다. 광주MBC가 창사 60주년을 맞이했다. 먼저 축하드린다. 또한 그동안 시민과 함께해온 지역방송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보여준 뜻깊은 사항이 바로 5.18 왜곡 보도와 관련한 공식 사과였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지역민이 신뢰하고 즐기는 콘텐츠가 다양한 채널로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

-홈페이지 뉴스 섹션 의견을 드리겠다. 오늘의 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에 소개되는 당일 보도의 썸네일 이미지가 MBC 로고로만 되어있어 단조롭다. 영상취재 등이 돼 있는 보도가 다수인 것 같은데 썸네일로 보도 내용과 일치한 이미지가 보이면 정보의 공감대가 더 높아질 것 같다. 지난 요일 영상 중 일부는 변경되어 있지만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숙희 부위원장 : -광주문화방송 60주년 기념식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44년 전 광주의 아픔 속에 오류가 있었고, 60주년 기념식에서 광주의 아픔과 더불어 그 오류에 관한 진정한 사과를 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참 잘한 결정이라 회자하는 이 시점에, 광주의 아픔을 소설화한 문학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이 발표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이 작품을 들여다보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광주문화방송 60주년의 사과와 맞물린 광주 출신 작가의 노벨상 발표. 이처럼 절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뿐일까? 신의 한 수였다.

-선박은 작은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수송통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각 선박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시커먼 불연매연이다. 승선하는 동안 흡입한 사람들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게 시커먼 매연이다. 모든 디젤 차량은 불연매연 방지 장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반면, 선박 디젤엔진의 노후화에 대한 단속이나 규정은 없는 것일까? 승객 중에는 외국 관광객들도 많을 텐데 지자체도, 운송사도 이런 상황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운영하는 주체인 농협, 수협, 그리고 기존의 작은 선박회사 등등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 선박에 부착된 우리 태극기의 훼손 또한 심각하다. 바람에 날려 조금씩 떨어져 나간 토막 난 태극기의 상처들 또한 주기적으로 교체했으면 한다. 탄소중립에 온 인류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섬과 섬을 잇는 선박은 먼 나라 이야기로 보인다. 탄소중립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바란다.

- 장은백 위원 : -패널과 진행자로 구성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예상 총방송 시간보다 실제 녹화 시간을 매우 넉넉하게 해서 제작하면 패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더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녹화 자체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더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작 현장 여건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개선해주시면 지역방송에서 자체 제작하는 귀한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항상 좋은 방송 제작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정인영 위원 : -<시청자가 만드는 TV> 의견이다. 광주MBC의 편성 중 특색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시청

자가 만드는 TV>라고 생각한다. 각 회차당 2편에서 3편 정도, 10분 내외의 시청자가 제작한 영상이 방영된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그곳을 소개하거나, 자신만의 특별한 활동 또는 취미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주제를 짧은 영상으로 접할 수 있어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시청자의 참여율을 높이고 영상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시청자가 제출한 콘텐츠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작품을 선정해 '베스트 시청자 콘텐츠' 상을 수여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더 정성 들여 준비하게 만들고, 최종 결과물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수상과 함께 상금 또는 전문 제작진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현재 홈페이지의 다시 보기 조회수는 100회를 넘지 않는다. 광주MBC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우수한 시청자 영상을 적극적으로 올려 광주지역 시청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청할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대학생과 청년들이 만드는 단편 드라마나 재미있는 콩트 형식의 제작물이 적지 않으니, 좋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충주맨이나 한국관광공사의 이날치 홍보 영상처럼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채널이 될 수도 있겠다. 유튜브에 광주MBC로 검색하면 광주MBC 뉴스가 가장 먼저 나오며, 광주MBC 채널은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중간쯤에 나타나 찾기 어려웠다.

-11월에 김치대전 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길 바란다.

- 정희 위원 : -광주문화방송 창사 60주년을 맞이하여 5.18 당시의 보도를 사과한 점은 용기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창사특집으로 헌법과 민주정치를 방영했는데, 87년 6월항쟁을 통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음은 처음 인식했다.

-광주과기원에서 물리학 벡터를 적용하여 오감도를 해석한 내용에 대한 보도는 광주과기원의 역할이 향후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며, 특히 광주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무안으로 공항통합 이전에 대한 보도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의식을 환기하고 통합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관련해 많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내려올 수 있게 유도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박양우 위원장 : -9월 25일 <남도탐구생활> 뉴스탐구생활에서 두 번째 순서에 나왔던 전남교육청, 쿠바 한인 후손 교육 지원 재개 사업 소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 같은 교육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일종의 ODA 사업의 좋은 사례요 모델이라고 보인다.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사회자가 광주교육청도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발언했는데, 이 방송을 보고 광주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정책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지자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선의의 정책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광주교육청이 동참하면 좋겠다는 기대 멘트에 그치지 않고, 광주교육청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광주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내용도 보도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또는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서 광주교육청의 향후 조치계획에 관한 동향을 지속해 취재 보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보도국의 취재 자원이 되고 또 보도국의 기사가 이 프로그램에 환류된다면 한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선순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에 깜짝 놀랐다. 엠비시에서도 보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결국 어떻게 하면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문화체육부에 있을 때도 과제였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콘텐츠가 좋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번역이 좋아야 한다,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외국인에게 깔려 있어야 한다, 나라가 잘 살아야 한다 등을 얘기한다. 국력은 중요하긴 한데 절대적 영향력은 아니다. 번역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국번역원에 예산을 10배로 늘려주면 수상자가 나올 것인가? 결국 제가 보기엔 유통의 문제다. 광주의 작가들이 왜 뜨지 못하는가? 결국 출판사가 톱텐이 되면 제일 좋은 작가를 찾아낸다. 한강 작가는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 번역가가 외국 출판사와 접촉하고 상을 받게 됐다. 그리고 다작이 돼야 한다. 한두 개로는 상을 받기 어려운데 한강 작가는 해외에 많이 알려져 유력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 한강 작가가 좋은 출판사를 만나고, 많은 작품이 해외에 소개돼 유력하다고 생각했다.

-창사 60주년 관련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광주MBC 사과는 가슴 뭉클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현직 사장이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장관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 사과를 했다. 전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었지만 장관으로서 공식 사과를 했고, 블랙리스트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가슴 뭉클했고, 위원 한 사람으로 자랑스러웠다. 광주MBC 위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관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길 바란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재생에너지 관련해 관심 감사드린다. 정회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대로 신규 허가가 제한되니까 광주·전남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의 송전탑을 세우는 건 반대가 극심하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로 대안을 제시해보겠다. 장은백 위원 말씀대로 진행자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는 유의하겠다. 유한별 위원 말씀하신 부분, 시청자에게 전달할 때는 보다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와 쉬운 표현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창사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린다. MBC가 올 초부터 굉장히 어려웠고, 창사 60주년을 맞아 사장으로서 고민이 많았다. 시민들의 힘이 됐고, 60년 행사는 시민에게 보답하는 행사로 소소하게 앞뜰에서 하자는 마음이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당시 당시의 화재에 대한 규명이 있었고, 더 늦기 전에 대표이사로서 사과했다. MBC와 함께 한 무등산을 사랑하자 캠페인 수료생 중 대표 한 분, 노성대 사장은 왜 광주시민이 폭도냐고 해 해직되었다. 무등산 캠페인을 만든 김포천 사장 6대 회장이 헌사를 해주셨고, 더불어삽니다 캠페인을 만든 최영준 사장, 무등산사랑환경대학 시민, <푸른 신호등> 먼저 가지지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택시 기사, 네 편의 다큐를 만들기도 했는데 고한창기 이런 분에게 의미를 담아서 창사 60주년 행사를 했다. 60년을 넘어 시민에게 보답하는 고마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다. 광주MBC가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고 있다. 많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시청자 의견으로 자체 뉴스와 자체 프로그램 방송하는 광주MBC 로고가 한글로 되어 있는데 광주MBC 로고를 원래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한글날에만 광주문화방송 로고 한글 로고를 해달라는 것이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